

# 4월 보선, 여야 물러설 수 없는 대결

### 새정치, 광주 서울 등 3곳 모두 야권표발 사수 총력 국민모임·정의당, 옛 통진당 전의원 대거 출마 채비 새누리, '제2 이정현 없다' 서울 후보 영입 공물들이기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여야는 4·29 보궐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보선은 내년 총선 이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인데다, 박근혜 정부 3년차 주도권이 걸려 있어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자다. 보선이 치러지는 세 곳 모두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야권 보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권 지지세가 꾸준히 높아져 오고 있다.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수성'을, 새누리당은 제2의 '이정현' 구원을, 국민모임은 교두보 확보를 노리

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난 1월초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일찌감치 후보자를 정하는 등 한발짝 빠르게 선거 준비에 나섰다. 경기 성남 중원구 서울 관악 을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신상진 전 의원(현 당협위원장)과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광주 서구 을도 예전 같았으면 사실상 포기할 지역이었으나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 승리가 가능한 후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양승조 사무총장과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 관악 을에는 정태호 지역위원장과 김희철 전 의원, 성남중원에는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과 정환석 지역위원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홍준희 변호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서구 을은 조영택 지역위원장과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 부대변인, 김성현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 등이 도전장을 냈다. 국민모임과 정의당은 4·29 보선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후 3곳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고,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도 모두 출마할 태세다. 이번에는 야권연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지역에서 1(여당)대 3(야권) 구도

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연대 '범시민 통합후보'를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최근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천정배 전 의원의 행보도 서구를 보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 국민모임 후보로 나서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단할 경우, 서구 을 보궐선거의 가변성은 더욱 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선거구·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 내달 정개특위 구성

다음 달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러지면서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최근 활동을 마친 각 당의 쇄신기에서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을 두루 논의하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가장 시급한 선거구 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선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될 예정이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제도를 중대선

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포함한 제도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정의의 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2~3개월 활동하면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정의 의장 측은 "12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야당에서 4명을 추천했고, 여당과 의장도 연휴 이후 각각 4명을 추천할 것으로 본다"며 "자문위원이 각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큰 데다 정당 및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갈릴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재인 '탕평 인사' 마침표는 실무형 당직인선에 달렸다

### 사무총장·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친노 배제 불구 수석사무총장·전략기획위원장 등 전진배치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의 실무형 당직 인선을 놓고 문재인 대표의 탕평 인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전략홍보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는 친노 인사를 배제했지만 '실무형' 당직에 측근 인사들의 전진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 조직과 실무를 총괄하는 수석사무총장 자리에 친노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을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카드를 처음 제시했으나 일부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일단 임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 인사는 친노 그룹으로 묶이지는 않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법 친노로 분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노 진영 일각에선 문 대표가 '노른자위' 당직을 놓고 탕평 인사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장 4월 보궐선거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원직으로 합류할 수석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잠잠하던 계파 간 신경전이 달아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노계 모 의원은 "계파의 '기'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더니 막판 당직 인사에 사실상 친노 인사들을 기용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요 당직 인사도 김영록 대변인을 제외하고 전대에서 자신을 밀어준 사람들을 기용, 사실상 '무늬만 탕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석사무총장 인선을 마쳐야만 4월 보선기획단장,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4·29 보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박 대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0.9%P차... 여야 지지율 역전되나

### 리얼미터, 설전 1000명 설문 새누리 34.7·새정치 33.8%

여야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6~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에 따라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정당별 지지율이 새누리당 34.7%, 새정치민주연합 33.8%, 정의당 4.1%로 각각 집계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 창당 이래 가장 작은 0.9%포인트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2.0%포인트

상승했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6월 3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리얼미터 측은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상승한 것은 전당대회 효과와 더불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총리 지명 후폭풍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27.5%로 7주 연속 선두를 지켰고, 박원순 서울시장(11.2%)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9.0%)가 2~3위에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이 총리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7%로 7위를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화갑,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해소 패소

유신 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 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정

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한참 후인 2013년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 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도 내 작년 4월 5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타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국제비즈니스호텔 메디컬센터 긴급임대**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도로 철거후 지하화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대)확보  
현금투자 최적지임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무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평)	병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7층 (120평)	병의원 (치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6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5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4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3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2층 (120평)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120평)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시, 한의원, 판매시설,참치전문점
지하층 (270평)	스포츠타지, 유희/댄스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100평)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플라텍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주)21세기 산업개발  
**국제비즈니스호텔 메디컬센터** (병원 개인의원, 약국함영 등)  
문의 010-2112-323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교육인내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재출서류 :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월료 : 10,000원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사로 36 광신대학교